

시니어의 기술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포함하여¹⁾

장수진(호서대 벤처대학원 박사과정)²⁾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시니어의 기술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회복탄력성이 이들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만 40세 이상의 남녀 시니어 (예비)창업자들로, 20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4.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가설검정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적 연구 분석결과, 첫째, 기술 스트레스는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복탄력성은 기술 스트레스와 시니어의 창업의지 간에, 또 자기효능감과 시니어의 창업의지 간에 부분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니어의 창업의지를 극대화하는데 자기효능감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선행이론을 지지하였고, 시니어들이 창업의지를 가지고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선행변수로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나아가 새롭게 독립변수로 투입된 기술 스트레스도 자기효능감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또, 회복탄력성이 간접적인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연구 의의가 있었다. 단, 기술 스트레스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인 관계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시 된다.

■ 중심어: 시니어창업, 기술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창업의지

I. 서 론

한국은 저 출산, 고령화의 추세에 따라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지난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문성식, 2018). 이는 통계청이 예측한 2018년보다 빠르고, 25년이 걸린 일본보다도 빠르다(통계청, 2017). 또한, 2026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청년세대의 취업문제와 더불어 시니어세대가 고용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위의 최우선과제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선정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 보강하고 일자리에 관

1) 본 논문은 주저자인 장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2) 주저자: 호서대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sj7339@hanmail.net

· 투고일: 2019-03-15 · 수정일: 2019-05-03 · 게재확정일: 2019-06-17

한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특별시도 지자체 최초로 50+세대(50세~64세)의 고민(불안, 일하고 싶음, 갈 곳이 없음)과 현실을 반영하여 '50+종합지원 정책'을 가동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50+재단, 50+캠퍼스 등을 기본 축으로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참여 희망연령도 증가, 확대되고 있고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의 실질적인 은퇴 희망연령도 72세에 이른다(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하지만, 2018년 2분기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15세~29세의 청년실업률은 10.1%로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제, 사회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통계청, 2018 시도별 청년실업률).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시니어들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시니어들은 청년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을 가진다면 창업 혹은 재취업의 의사결정을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보다 더 많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시니어세대의 창업의지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새로운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술 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기술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창업에 관한 연구, 특히 시니어 창업연구에 있어서 타 학문에서 많이 연구된 기술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적용해 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문적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힐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의 창업지원정책과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 시니어들에게도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긍정적 선택이 될 수 있는 창업에의 의지를 키우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포함하여 기술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이론적 분석을 하였으며, 조사대상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실증적 조사 분석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관련 논문 및 학술지, 정부정책자료, 관련 서적,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 및 일자리위원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등의 홈페이지와 각종 통계자료와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문헌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론적 선행연구를 통하여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술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구조적인 흐름을 연구 모형 화하여, 이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가설을 설정한 후, 검증을 위해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11일 동안 온라인 설문을 활용, 유효 값 207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4.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기술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과 시니어의 창업의지 사이에 회복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시니어

시니어(Senior)의 사전적 의미는 '상급자', '손윗사람' 또는 '연장자'의 의미로 '주니어(Junior)'의 반대어로서 쓰이지만 연령별 세분화에서의 시니어는 국가별, 사회 환경, 적용 분야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고 학자들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를 '실버(Silver)',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노인', '고령자', '어르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니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시니어에 관련된 법률도 조금씩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UN에서는 고령자가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노인을 '60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또한, 노인복지 관련 법규에서는 개별조항에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하고 있다. 50+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지원기관으로 2016년 4월 28일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50+재단에서는 '만 50세~64세'를 50+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창업지원사업의 핵심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와 '시니어 기술창업스쿨'의 지원대상도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로 되어 있고, 2011년부터 시행된 시니어 비즈플라자 운영지침에도 '만 40세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만 40세 이상으로 경력·기술력·네트워크 등의 전문성을 겸비한 중·장년 (예비)창업자들을 시니어로 정의한다.

시니어의 창업·창직·채취업의 의의는 개인으로서는 퇴직 또는 이직에 따른 상실감을 보충해 주고 개인에 가치와 만족도를 높여, 퇴직 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과 부정적인 감정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시니어가 창업·창직·채취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인 필요 때문이다. 시니어가 어떤 이유로든 조기 퇴직하는 경우, 자녀 학비, 결혼 비용 등의 지출이 크게 필요한데도 연금이나 수입 등의 추가적인 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 퇴직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일자리에 대한 필요는 더욱 절실하다. 둘째는 사회적 필요 때문이다. 사회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시니어의 심리적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신체적 능력의 감퇴와 노화를 통해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시기이다(최혜련, 2015). 하지만,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를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중년기 또는 청년기와 다르지 않은 심리적, 사회적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순재, 2014).

중장년층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적 측면에서 지각능력의 감퇴로 선택, 주의, 해석 등에 대한 이해가 느려져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감각적 측면에서는 시각능력 감퇴로 시야가 좁아지고 빛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고 눈의 움직임도 저하되며, 청각능력이 감퇴해 소리를 판단하는 능력 또한 감소한다. 떨림 현상은 증가하며 운동기능이 저하되고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임을 최대한 작게 하며 손가락 끝의 힘과 감각이 쇠퇴하면서 섬세한 작업이 어려워진다(노영서, 2012). 반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중장년층의 특성을 살펴보면,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며 높은 소득과 소비 수준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연금 등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종교, 취미, 운동, 친목 활동 등 사회적 활동도 많아지는 추세이며, 꾸준히 건강과 자기관리를 통해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중장년층 세대는 전통적인 노인층과 독립적이면서도 안정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노년기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위해 노력하는 세대이며 실버시장을 주도하는 세대이다(이승우 외, 2010). 이렇듯 중장년층 소비자들이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적응하지 못해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여주, 2015).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2016년 현재 OECD 평균은 62.1%인데 반해 한국은 스웨덴, 일본, 독일 다음으로 미국보다도 높은 68.0%의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2016년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 비교). OECD 기준의 고령자 55~64세를 대상으로, 2017년 고령자 고용률은 67.5%로 2016년 대비 1.4% 상승하였으며, 고령자 고용률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이후, 고용률은 2007년 이후 계속 60% 수준을 상회하며 전반적으로 고용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고용노동부, 2018 고령자 고용 동향). 2003년 이후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이긴 하지만, 양질의 고령자 일자리는 항상 부족하고, 임시,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취업지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7%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2000년 이후 17년 만인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14%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 676만 명)는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이에 60세 이

상 정년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실질적이며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볼 수 있다.

시니어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변화와 법적, 제도적 지원이 다양화됨에 따라 시니어 창업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중에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른 세대의 일자리 창출까지도 가능한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니어창업은 시니어들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생산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국가적인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늘어난 수명에 따른 삶의 균형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니어창업은 시니어가 직장생활로 쌓아온 역량을 은퇴 후에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정부도 시니어창업에 대한 연구로 시니어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40~50대 시니어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다양해지고 또 커지고 있다(문성식, 2018). 시니어창업이 활발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정년은 짧아지고 수명은 연장되어 과거보다 더 길어진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부족한 비축자산보다 더 많은 소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니어는 은퇴 후 창업을 통하여 새로운 활기를 찾아 기존 직장생활에서는 갖기 어려웠던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표1> 은퇴 이후의 진로에 대한 연령별 비중

(단위: 명, %)

구분	총	40대 미만	40대	50대
응답자 수	1,000	506	248	246
경력기반 재취업	20.1	20.8	19.3	19.5
경력무관 재취업	12.4	8.3	13.3	19.9
경력기반 창업	22.5	23.7	24.2	18.3
경력무관 창업	21.6	21.7	23.4	19.5
요양 및 휴식	22.8	25.3	19.0	21.5
기 타	0.6	0.2	0.8	1.3
총 합	100.0	100.0	100.0	100.0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6), “2016년 STEPI 대중의 창업인식 조사”

<표1> 2016년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대중의 창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진로에 대해 ‘요양 및 휴식(22.8%)’ 만큼 ‘경력기반 창업(22.5%)’, ‘경력무관 창업(21.6%)’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창업의 형태는 대부분이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자기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40대 응답자는 ‘경력기반 창업(24.2%)’와 ‘경력무관 창업(23.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니어들은 은퇴 이후에도 요양 및 휴식보다는 창업 혹은 재취업에의 희망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니어 창업자는 일생을 통해 축적된 지식, 노하우, 경험이 많고, 대체로 재정적 자원이 많은 반면, 퇴직 이후 고독감, 이탈감 등으로 자신감이 크게 저하되어 있으며 창업 업종의 쏠림현상으로 폐업률이 높다(Weber and Schaper, 2004). 고령 사회에 진입하자마자 초고령사회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대비가 매우 시급하다.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베이비부머세대-시니어들의 은퇴 이후의 삶은 불안하고 불확실하며 양질의 일자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고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시니어들은 안심할 수가 없다. 오랜 직장생활로 기업가정신마저 희미해지고 짧은 창업교육과 더 짧은 창업 준비기간에 과당경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폐업률이 높은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는 시니어창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정부가 최소한의 기본 틀을 마련해 주고 창업의지를 일으키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은퇴 전부터 은퇴 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내 기업가정신, 전직 및 창업교육을 의무화하고 생계형 창업보다는 경력 기반형 또는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좀 더 세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니어들의 경험과 노하우, 지식을 재구성하여 창직을 통한 창업이나 청년창업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끌어주는 멘토, 컨설턴트로의 전향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2 기술 스트레스

최근 ICT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정해진 업무시간과 장소에서 행해지는 전통적 방식의 업무에 비해 상당 부분의 업무가 모바일 및 네트워크 중심의 근무형태로 바뀜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업무 형태와 문화를 가져왔다(오성탁, 2014). 업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문자, 전자 우편(E-mail), 인터넷, 휴대전화, SNS(Social Networking Site) 등으로 항상 누군가와 또는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와 끊임없이 어떠한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사용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를 원하든, 원치 않던 접하게 된다. 이렇게 급속하고 다양하게 발달하는 기술은 사용자들에게 때때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이러한 현상 가운데 기술 스트레스가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임명성, 한군희, 2013). 기술 스트레스는 Techno Stress, Computer Anxiety, Negative Computer Attitudes, Computer Stress, Technophobia, Computer phobia, Cyberphobia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다르게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운용을 위한 지식의 필요와 습득에서 발생하는 불안, 초조, 우울증, 노이로제, 강박, 중독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말한다.

기술 스트레스의 다른 표현인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는 1982년 미국 임상심리학자 Craig Brod가 처음 사용한 합성어로, 기술(Technology)과 스트레스(Stress)가 합해진 신조어로서 개인 및 조직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과 운영에 적응하는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이다(Brod, 1982). 1984년에는 그의 저서 'Technostress'를 통해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따라잡기 어려운 능력에 의해 초래된 순응에 대한 현대적 질병이라고도 하였다(Brod, 1984). 즉, 건전한 방식으로 컴퓨터 신기술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야기되는 부적응력으로 일종의 신종 질병이다(김정은 외, 2007). 새로운 기술과 변화된 업무환경에서 ICT기술에 대한 다양한 업무지식, 관리자의 의존성, 이용자 지식수준의 차이 등이 업무환경과 업무문화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스트레스이다(Ragu-Nathan et al., 2008). 또는 정보통신기술 사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되며, 태도, 생각, 행동 또는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모바일 오피스를 사용함에 있어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스트레스이다(김현정, 2012). 상시 접속,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모바일 정보기술이나 협력도구, 지속적으로 소개되는 정보기술과 이것에 적응해야 하는 작업자, 정보기술의 지속 업데이트로 인한 지속적 학습 및 업무 요구사항의 모호함, 이용자 편의가 고려되지 않은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으로 인해 발생하는 좌절감과 긴장감 등으로 풀이되기도 한다(Schellhammer et al., 2013).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적절히 적응하고 대처하지 못해 기술에 대한 공포, 두려움, 불안 등을 경험하는 상태(임명성 외, 2015), 컴퓨터를 운용하기 위해 방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기는 초조, 우울증, 신경쇠약 등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라고 하였다(노희옥 외,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 스트레스를 ICT의 발달로 인해 변화된 창업 환경에서 시니어들이 창업과 그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서 주로 컴퓨터 등 디지털 제품과 관련한 신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테크노스트레스는 사용자에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디지털기술을 수용하려고 고군분투하는 테크노불안증(Techno-anxious), 다른 하나는 디지털기술에 지나치게 중독되는 테크노의존증(Techno-centered)이다(김정은, 2007). 이를 각각 테크노 포비아(Techno-phobia), 테크노 필리아(Techno-philia)라고도 한다(도현래, 2017). 테크노 불안증(Techno-phobia)은 보통 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기술발달로 인해 강제로 새로운 기술사용을 강요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새로운 디지털기술 습득에 있어서의 자신

의 실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 컴퓨터 운용에 필요한 지식 습득에의 부담으로 인한 초조, 우울증, 노이로제(Neuroze) 등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좌절감을 느끼거나 디지털기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디지털기기 사용을 회피하려고 하며, 새로운 기술 습득에 능숙하지 않거나, 심신이 거부반응을 일으켜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한 경우 회사를 그만두기도 한다(도현래, 2017; 이미경, 2018). 테크노 의존증(Techno-philia)은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중독되어 개인의 정체성이 기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으로 불안, 두통, 눈의 긴장과 피로, 근육 긴장, 감정적 스트레스, 신경 긴장상태의 고조 등을 의미한다(김정은, 2007; 노희옥, 2015). 테크노의존증은 테크노불안증과는 반대로, 새로운 기술에 비교적 익숙한 청년층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신기술에 너무 빠져 시간 및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고,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진수향 외, 2012).

최초로 테크노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Brod는 테크노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기술 과부하, 사생활 침해, 기술 복잡성, 직업적 위협 등 4개 요소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Brod, 1984). 이와 다르게 테크노스트레스를 정보피로 증후군(Data smog)과 다중작업 증후군(Multitasking madness), 컴퓨터 혼란(Computer hassles), 탈진(Burn-out)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기도 하였다(Brillhart, 2004). 또 테크노 과중(Overload), 테크노 침해(Invasion), 테크노 복잡성(Complexity), 테크노 불안정성(Insecurity), 테크노 불확실성(Uncertainty)의 5가지 유발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Tu et al., 2005; Tarafdar et al., 2007). 이와 다르게 정보기술의 사용적 측면(유용성, 복잡성, 신뢰성)과 침해적 측면(IT연결성, 익명성), 동적 측면(IT 변화 속도)들이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일-가정 갈등(Work-home Conflict), 업무 과부하(Work Overload),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 역할 모호성(Role Ambiguity), 고용 불안(job insecurity)의 5가지 요소가 제시되기도 하였다(Ayyagari et al., 2011).

국내에서는 박종필, 최영은(2013)이 기술적 스트레스, 기술-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개인적 스트레스 차원의 3가지로 범주화하면서, 기술 복잡성과 변화 속도성, 기술-업무 차원으로는 기술 과부하와 정보기술-업무 부적합, 개인적 스트레스 차원으로는 일-가정 갈등과 사생활 침해의 6가지 유발요인을 제시하였다(박종필, 최영은, 201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기술 스트레스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발요인에 대한 연구로 선행연구들 대부분 기술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밝혀져 왔다(박종필, 최영은, 2013). ICT에 대한 테크노스트레스가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피로를 유발하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정보를 정확히 처리하기 어렵게 만들고, 컴퓨터의 요구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하여 개인의 쉬는 시간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Brod, 1984). 스마트폰 사용자의 테크노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기술적 한계, 대안 다양성, 혁신성이 검증되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테크노스트레스가 발생한다(박나래 외, 2011). 시스템 취약성과 품질은 테크노스트레스의 5개 요인(기술 과중, 기술 복잡성, 기술 불안정성, 기술 불확실성, 기술 침해)에 대해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임명성, 한군희, 2013). 실제로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적인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업무량 증가와 업무의 사생활 침해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따라서 테크노스트레스 유발 요인 중 테크노과중과 테크노침해가 다른 유발 요인에 비해 심리적 분리와 일-가정 갈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안세환, 2017).

둘째,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국내 대기업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테크노스트레스가 직무 만족과 개인 생산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박종필, 최영은, 2013). 지속적인 정보기술 사용으로 인한 테크노스트레스가 조직 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계속 증가하면서 유용성, 복잡성, 신뢰성, 업무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 익명성, 그리고 변화속도가, 사생활 침해, 역할 모호성, 업무 과부하, 일-생활 갈등 및 직업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분석 결과 대부분의 가설이 지지되었다(홍세일, 2017). 기술 스트레스 모형은 기존 직무스트레스 요인들이 정보기술 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직무스트레스 모형과 차별점이 있으나,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이라는 외부 자극이 직장생활의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직무스트레스 이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서아영, 2012). 테크노스트레스는 일-가정 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테크노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일-가정 갈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오성탁, 2014).

셋째, 스마트기기 사용의 부작용으로서의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한 것으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휴식이나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와 같은 이용중단에 관한 연구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기기의 수용 후 이용 중단하는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연구 결과, 테크노스트레스와 디지털 디톡스는 지각된 위험에, 지각된 위험은 디지털휴식에 영향을 미쳐, 사람들이 테크노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이용중단을 할 수 있다(Lee and Lee, 2014). 테크노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인 후회와 실망, 전환비용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테크노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감정인 후회와 실망, 전환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정보기술의 이용중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이국용, 2017). 따라서 스마트화를 거부하는 민감성 사용자들의 테크노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진수향 외, 2012). 테크노스트레스 발생 정도는 인구 통계학적 측면에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테크노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Tarafdar et al., 2011).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유발 요인들은 여러 실증 연구를 통해 규명된 요인들이나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것은 아니다(임명성, 박민수, 2015). 학자들마다 기술 스트레스 유발 요인의 구분과 그에 대한 내용이 상이하므로,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사회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또는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핵심 요인으로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으로서 캐나다의 심리학자 Bandura가 제안한 개념이다(기하영, 2016). Bandura는 자기효능감에 대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였고, 어떤 과업이나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능력과 함께 자기효능감이 필요하므로 자기효능감이란 객관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의미하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 해낼 수 있다고 자신을 믿는 것으로 정의하고 개인이 장애에 부딪혔을 때 또는 자신이 원하는 반대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이자 일종의 자신감이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당면한 업무에 대한 집중과 지속성을 통해 높은 성취수준의 결과를 보일 수 있다(박철우, 2016). 자기효능감은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며 의미 있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믿음인 자아존중감이다(문성식, 2018). 자기효능감은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기업을 시작하고 성공시키려면 인지된 자기효능감이 있어야 하며, 자기효능감의 유무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박철우, 2016).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권혁호 외, 2002).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지각, 자기조절과 문제해결을 통한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1). 자기효능감은 애매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 개인이 과제수행을 위해 동원하게 되는 기술이나 지식 등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신념으로 상황적, 구체적인 자신감의 강도를 뜻하며 인간행동에 영향을 준다(황수연, 2007).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 혹은 자신감으로,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구진아, 2010).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자기효능감을 특정한 과업을 계획된 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정의하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더 크고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더욱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며, 높은 성과를 통해 높은 보상을 기대하며 주어진 제약 속에서도 추구할 가치가 있는 기회에 주목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이 업무성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된다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로 직무만족, 조직 몰입과 같은 개인 태도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진욱, 2013).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과업 초기의 난관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여 쉽게 포기하거나 결과에 쉽게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며, 낮은 성과를 기대하여 결국 부정적인 보상을 예상하며, 주어진 제약들을 이길 수 없는 장애로 인식함으로써 노력해도 이를 수 없을 것이라는 포기상태를 쉽게 받아들인다(정병헌, 2015).

창업 프로세스에서 자기효능감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창업 분야에서 자기유능감을 창업자기효능감(ES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으로 명명하여 창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백수민, 2014). 즉,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를 가진 사람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창업가의 창업의도 및 창업행위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창업이라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환경에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끈기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개인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위해 필요한 세부계획과 실천전략을 개발하여 더 강한 의욕과 열정을 발휘하도록 돕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안승권, 2016). 창업에 대한 자신감은 예비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선행조건 중 하나로, 창업자기효능감의 지각이 높은 예비창업자는 경쟁적인 창업환경에 대하여 기회가 충분한 것으로 지각하고 위험, 역경, 불확실성 등이 높은 창업 현실에서도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면, 실패의 가능성은 적게 지각하며 도전적 상황을 자기 의지를 펼쳐나갈 좋은 기회라고 지각한다(Krueger and Brazeal, 1994).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데, 기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인 자기효능감이 높아야 하며 이는 자기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가정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양준환, 2015).

창업의지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창업가는 다양한 위험과 도전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현실 대처감각이 더 크므로 창업의지를 보다 더 키울 수 있다(Boyd and Vozikis, 1994).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창업에 관심이 많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지원제도, 창업프로그램, 창업교육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정대용 외, 2013). 창업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Zhao et al., 2005). 창업은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창업교육은 창업기술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Zhao et al., 2005).

중년기의 조직이나 직장의 환경 변화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여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점차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게 되며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현란, 2015). 이러한 현상들은 노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많은 노인들은 중년기에 비해 자신감, 그리고 인지적인 면에서도 더 낮아진다. 따라서 은퇴자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적 생활수준보다 자기효능감이 매우 강해야 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활 만족도가 증대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최갑현, 2016). 노년기에 이르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퇴직하게 되더라도 일에 만족감이 있거나 직업인의 정체감이 있다면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일하고자 하는 욕구와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노인의 경제상태, 신체, 정신 건강상의 만족은 서로 영향을 주며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을 갖고 자기혐오를 극복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김소향, 이신숙, 2009). 즉 시니어의 창업, 창직, 재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생계유지는 물론 심리적, 육체적 안정과 자기효능감 증진으로 인하여 삶의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시니어의 일자리에 대한 교육내용과 방법은 창업자기효능감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4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이란 늘어나 있거나 압축된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능력을 의미한다(홍은숙, 2006). 라틴어의 'Resiliere'에서 유래된 'Resilience'는 어떤 물질이나 기관의 유연한 탄력성을 묘사하는 용어였는데(Chapman, 1992), 이 용어가 사회과학 등에서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박현선, 1998). 심리학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주로 '정신적 저항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연구되고 있다(홍은숙, 2006). 이는 주어진 환경에 따른 역경,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적응해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마

련된 심리학적 개념이다(신현숙, 2013).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역경의 환경에서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박현선, 1998). 어려움에서 적응적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인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의 향상 즉, 성장을 나타내는 개념인 '탄력성'을 합쳐 '회복탄력성'이라고 명명했다(신우열 외, 2009). 불안과 긴장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긴장, 압력의 상황에서 완충적인 특성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구인이다(이수현, 2007).

회복탄력성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며, 일의 수행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복과 성공의 기본요소이다(Reivich and Shatte, 2002). 즉, 인간이 내·외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김주환, 2011). 스트레스와 일상 속의 난관들에 효과적으로 대처, 극복하고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능력이자 분명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대하는 역량이며, 인생의 도전에 대해 자신감, 목적, 의무, 희망, 사고력, 감정이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성동제, 2015). 반면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성격적인 특성이 아닌 외부 환경요인과 상호작용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향 주고받아 학습할 수 있는 역동적인 개념이다(마예림, 2016).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그것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탄력성을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정의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으로 정의하는 방식이다(김수복, 2016). 전자의 입장은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탄력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으로 명명하였다(Block and Block, 1980). 자아탄력성은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있게 적응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스트레스나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성격 유형으로 정의된다. 반면, 후자의 입장은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탄력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회복탄력성(resilience)'으로 명명하였다(Garmezy, 1993). 그러면서 회복탄력성을 개인이 역경으로부터 회복하여 긍정적인 적응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심리사회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노치경, 2018). 자아탄력성은 내적 특성이기 때문에 잠재적 역경에서의 반응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회복탄력성은 역동적인 발달과정으로 부정적 상황에서 어떻게 표출될지 예측가능하다고 보아 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였다(이임덕, 2012).

회복탄력성은 역경과 적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배혜련, 2011), 어느 정도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환경적 요인과 문화, 교육, 개인의 노력 등과 같은 다양한 후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박인영, 2014).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를 겁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이다. 즉, 자신의 실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이 일관성 있게 정의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 안팎의 일이며 'Resilience'에 해당하는 용어가 아직도 완벽히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김윤경, 2015). 국내에서도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연구자가 'Resilience'를 어떻게 명명하였는가에 따라 심리적 건강성, 회복력, 탄력성, 회복탄력성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의학, 공학 등의 분야에서도 회복력, 극복력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일치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회복탄력성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에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이는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난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능력과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배혜련, 2011). 이처럼 회복탄력성의 정의가 다양하고, 용어의 합의가 어려운 것은 회복탄력성의 다양한 요인들이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 있고 인간의 긍정적인 능력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배혜련, 2011).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개인이 속한 상황 속에서 위협이나, 위기,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반응하여 이를 극복하고 성공해 내는 개인의 가변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태은주, 2015). 회복탄력성을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연구한 김주환(2009)은, 하위요인을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자기조절 능력은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며 긍정적 감정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대인관계 능력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강한 회복탄력성의 기반이 되며, 긍정성은 자신의 행복을 남에게 나눠줌으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긍정적 정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밝혔다(김주환, 2009). 다른 요인들로는 자신감, 대인관계, 낙관적 태도, 정서조절, 효율성이 있고(Kolhnen, 1996), 개인적 능력(자기신념, 자아인식, 자기효능감), 목표지향 능력(낙관성, 목표지향성), 사회적 능력(공감능력, 문제해결력, 협동 및 대화기술)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Constantine, 1999).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회복탄력성 지수검사(RQT : Resilience Quotient Test)에서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현실적인 낙관론,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이 제시되었다(Reivich and Shatte, 2002).

국내에서는 이해리, 조한익(2005)이 청소년의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총 48문항으로 개인내적특성과 외적보호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다(전정숙, 2015). 이후 신우열 외(2009)는 Reivich and Shatte(2002)의 회복탄력성 지수검사(RQT)를 국내의 상황에 맞춰 통제성(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긍정성(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사회성(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의 9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회복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긍정성을 꼽았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아동기 초기의 요인에 대한 연구로 출발하였는데 위험한 상황이나 역경, 충격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해가면서 건강하게 발달하는 성장의 힘이라 하였다(김수복, 2016). 과거에는 인간 발달에 대한 연구가 주로 병리적·부정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지만, 최근엔 인간의 긍정적 측면, 극복 능력과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즉, 질병보다는 건강에, 좌절보다는 회복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홍은숙, 2006).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오늘 날에는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정신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탄력성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지각된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지각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혜련, 2011).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낙관성, 학습욕구, 공감능력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원, 2014). 회복탄력성은 생활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 불안과도 부(-)적 상관을 보였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회복탄력성 하위요인 중 통제성과 긍정성이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박은지, 2014).

인간은 수많은 문제적인 상황과 역경에 직면하며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일생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련하여 삶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람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의 생활과 대인관계에 잘 적응해 나가며 자아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정선아, 2012). 회복탄력성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발달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한선영, 2015). 선행연구에서 보면, 회복탄력성은 고정되어 있는 특성이라기보다는 발달단계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역동적인 특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가변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성격과는 구별되는 요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동일 외, 2011). 또한 회복탄력성의 핵심은 결함이나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능력, 변화하는 상황에 알맞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유안진 외, 2005). 즉 회복탄력성은 훈련과 개인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

정리하면, 회복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잘 극복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어내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선천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습득가능하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김수안, 민경환, 2011).

2.5 창업의지

의지(意志)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심리학에서는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으로 의욕과 같은 의미로 쓰이며, 철학에서는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하

는 내적 욕구로 도덕적인 가치 평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표준국어대사전). 행동과학 연구에서 의지를 심리적 과정으로 보았을 때 의지가 다른 영향요인들보다도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rd, 1988). 그래서 실제 창업을 위한 의사결정과 실행에 미치는 창업의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호병환, 2016). 일반적으로 창업(Entrepreneurship)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Gartner et al., 1992). 이것은 창업이 하나의 조직을 출현시키는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이고 ‘존재 그 자체라기보다는 존재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문성식, 2018). 창업의지(Entrepreneurship Intention)는 창업의 전(前) 단계이며, 창업의지가 없으면 기업의 설립이 결코 진행될 수 없다고 보아 창업의지는 기업설립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강성일, 2007). 즉, 하나의 사업체가 탄생하기 위해 계획이 구체화되는 일련의 행동이 창업활동이고, 이러한 창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 창업의지라고 할 수 있다(강재희, 강진희, 2013). 창업의지는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행동에 앞서는 마음가짐(김준용, 2014). 그리고 미래에 창업을 하고자하는 개인의 의지나 열정이다(강재학, 2016).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며, 창업과정의 첫 번째로 새로이 갖게 될 직업의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하므로 창업의지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이다(이지우, 2000).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Veciana et al., 2005). 따라서 창업의지는 현재가 아니라 향후 창업활동을 하려는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다(이병권, 전인오, 2014).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기업가정신인 성취감, 위험감수 의지, 불확실성의 감수 등의 개인적인 특성과 직업, 종교,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Mazzarol et al., 1999). 내부요인인 개인적 특성과 함께 경제적 환경, 제도적 환경, 사회적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지지도, 고용사정 등 외부환경 여건 등이 잠재 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오상훈, 2013).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를 확인하고 셀프 리더십이 창업의지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역할이 중요하다(유봉호, 2015).

창업의도의 선행변수인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 창업효능감은 모두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취업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김성우, 2017). 따라서 시니어들의 창업의지를 높여 창업실행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소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주변 환경조성과 함께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문성식, 2018). 창업의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또 학자에 따라 다양한 구성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창업의지와 기회 배경을 조사한 결과,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 일관되게 창업자들은 사전에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도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창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주 창업을 하고 있으며, 창업의지를 가졌던 창업자들은 시장예견을 통해 기회를 더 많이 포착하고 있었고, 이와 대조적으로 창업의지를 갖지 않은 창업자들은 단순관찰에 의해서 더 기회와 만나고 있다(조병주, 1999). 창업의지가 있는 창업자들은 창업의지가 없는 창업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수가 상대적으로 더 탐색적으로 기회를 발견하였고, 비의도적인 창업자들은 이와 반대로 우연한 상황에서 대부분 기회와 만나고 있었다. 따라서 창업의지와 기회단서 접촉 사이에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승배, 2013).

사회적 창업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개인의 창업의지가 창업의사 결정과 행동에 기반이 되며, 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잠재적 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러한 개인의 창업의사 결정과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창업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윤남수, 2012). 개인에게 창업의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파악하여 어떻게 창업을 결정 하는가에 대한 것은 미래의 창업활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므로 창업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이병권, 전인오, 2014). 따라서 창업은 창업자의 계획된 행동이라 볼 수 있으므로 창업의지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전제 조건이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창업에 관한 학문적 관심의 증대로 창업의도의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박시사, 강성일,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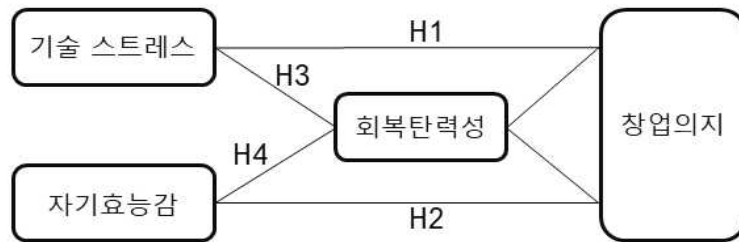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창업의지는 향후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 혹은 열정으로 정의하여 종속변수로 정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제 Ⅱ장에서 조사된 선행이론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 연령층은 시니어 집단으로 하였으며 창업을 예측할 수 있는 창업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술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을 선정하였다.

기술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회복탄력성은 매개변수로 설정되었다. 이들의 관계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기술 스트레스와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지만, 정승호(2014)의 중장년층 소비자의 디지털기기 사용 불만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스마트기기 등의 사용이 불편하다고 느낄수록 기술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승호, 2014). 시니어는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둔화되거나 시력과 청력이 감퇴되고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정보통신기기, 생활 속에서 전자제품 등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시니어의 심리적인 반경을 축소시켜 소외감이나 두려움, 우울 등의 감정을 초래할 수 있다. 시니어들이 느끼는 기술 스트레스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며 진취적인 사고와 행위를 요구하는 창업의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시니어의 기술 스트레스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창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이지우(2000)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와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실증하였고, 창업과 창업 이후의 유지에 자아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이지우, 2000). 이러한 근거에 기반을 두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시니어의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 스트레스의 여러 요인들 중 테크노의존증이나 테크노불안증은 모두 지나친 기술적 발전과 빠른 속도로 인해 유발되고 있다(도현래, 2017). 기술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중독성, 우울감, 포기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적극성, 도전의식 등을 수반하는 창업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일상 속의 실수, 난관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능력,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포함한다(성동제, 2015).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들의 회복탄력성의 보유 정도가 일반적인 연령층보다 기술 스트레스와 창업의지 간에 더욱 더 큰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시니어의 회복탄력성은 기술 스트레스와 창업의지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감이 높다는 의미와 같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박시사, 강성일, 2007; 구진아, 2010). 시니어의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어려움을 극복해내려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는 창업에의 의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시니어의 회복탄력성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IV. 연구결과

4.1 연구설계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표2>와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는 4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20일까지 11일간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중 219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최종 유효 설문지 207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해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11일 동안 온라인 설문을 활용, 유효 값 207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개념들의 측정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추출모델로는 측정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하기 쉽게 해주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고, 회전방식으로는 직교회전방식(Verimax)을 이용하였다.

셋째,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한 이론변수의 여러 측정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α 계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상관관계 분석을 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수치로 나타내었다.

다섯째,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 및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표2> 설문 항목

주요요인	측정항목
기술 스트레스	나는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는 새로운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위기의식을 느낀다.
	나는 내 곁에 첨단기술기기(스마트기기, 예: 핸드폰 등)가 없으면 불안하다.
	나의 개인생활이 최신정보기술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신기술에 익숙하지 못해 불안감을 느낀다.
	나는 최신기술의 사용에 미숙하여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나는 신속한 기술변화에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
	나는 최신 기술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기술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나는 요즘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제품을 좋아하는 것에 저항감을 느낄 때가 있다.	
자기효능감	나는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창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있다.
	나는 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과 격려를 한다.
	나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회 복 탄 력 성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는 편이다.
	나는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나는 살면서 뜻대로 일이 안될지라도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관철하는 편이다.
	나는 실패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편이다.
	나는 고난이 닥쳐도 오히려 디딤돌로 생각하는 편이다.
창 업 의 지	나는 창업을 할 생각을 매우 진지하게 가지고 있다.
	나는 언젠가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기회가 닿으면 창업을 하고 싶다.
	나는 장차 창업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
	창업에는 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고 싶다.

4.2 연구설계

4.2.1 표본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남성 120명(58%), 여성 87명(42%)이었다. 연령은 40대, 50대, 60대 이상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학력은 대학 졸업(53.6%), 대학원 졸업(20.3%)로 대졸 이상이 약 80%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회사원이 3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 전문직이 15%대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 외에 기혼이 76.8%,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53.6%이었다.

4.2.2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각 변인들의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설문에서 사용된 다양한 변수들의 상호관련성을 소수의 요인으로 추출하여 전체변수들의 공통요인을 찾아내어 각 변수가 받는 영향의 정도와 그 집단의 특성을 규정하는 통계분석 방법으로, 여러 개의 변수들에 내재된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압축, 요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변수들의 토대를 이루는 요인을 발견하여 주어진 자료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요인분석의 적합성 판단은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표3>과 같이 본 연구의 경우, 유의확률 .000에서 KMO 값이 .853으로 꽤 좋은 편에 속한다. KMO는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일반적으로 KMO 값이 .90 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80에서 .89 사이는 꽤 좋은 편, .70에서 .79 사이는 적당한 편으로 보고 있다. .50 미만인 경우,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판단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3653.779($p=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선택기준은 요인 적재치는 .60이상, 고유티값(Eigen Value)은 1.0 이상이었다.

<표3>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5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653.779
	자유도	300
	유의확률	.000

연구모형과 동일하게 독립변수는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종속변수도 1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매개변수

는 1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총 2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4개 요인이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된 총 분산은 65.73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복수로 설계된 항목 간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기술 스트레스 .869, 자기효능감 .801, 회복탄력성 .907이고 종속변수인 창업의지 .964로 모두 임계치인 .7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4> 요인 분석 결과

	기술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창업의지	cronbach α
기술스트레스9	.848				.869
기술스트레스6	.822				
기술스트레스5	.822				
기술스트레스8	.759				
기술스트레스7	.720				
기술스트레스10	.662				
기술스트레스2	.569				
기술스트레스1	.549				
자기효능감1		.775			.801
자기효능감3		.744			
자기효능감4		.690			
자기효능감2		.657			
회복탄력성3			.850		.907
회복탄력성6			.812		
회복탄력성4			.809		
회복탄력성5			.806		
회복탄력성2			.783		
회복탄력성7			.708		
회복탄력성1			.687		
회복탄력성8			.680		
창업의지2				.945	.964
창업의지5				.925	
창업의지3				.916	
창업의지4				.910	
창업의지1				.901	
회전제공합 적재량(%)	17.434	9.317	20.650	18.334	

4.2.3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집중타당성이 확인된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각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1.0 미만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충족되었다. 기술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모두 창업의지와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5> 상관관계 분석

	기술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창업의지
기술 스트레스	1			
자기효능감	.008	1		
회복탄력성	.177*	.368**	1	
창업의지	.335**	.381**	.343**	1

*. 상관관계가 0.05,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4.2.4 가설 검정 결과

4.2.4.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모형과 가설을 토대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주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효과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하는 통계기법이다.

<표6>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관계 검정 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차	검정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1	(상 수)	4.292	.859		4.997	.000		R=.297 R ² =.088 Adj.R ² =.065 F=3.887 P=.002
	성 별	-.406	.197	-.160	-2.064	.040	.757	
	결 혼	-.150	.209	-.054	-.718	.473	.810	
	연 령	-.130	.109	-.085	-1.196	.233	.893	
	학 력	.110	.109	.086	1.011	.313	.620	
	전 공	-.167	.094	-.129	-1.779	.077	.868	
2	(상 수)	.849	.864		.983	.327		R=.577 R ² =.333 Adj.R ² =.309 △R ² =.245 F=14.184 P=.000 Durbin-Watson=1.846
	성 별	-.570	.170	-.224	-3.350	.001	.747	
	결 혼	-.079	.190	-.028	-.415	.678	.724	
	연 령	-.117	.094	-.076	-1.242	.216	.886	
	학 력	.028	.094	.022	.294	.769	.613	
	전 공	-.105	.081	-.081	-1.291	.198	.860	
	자 기 효 능 감	.627	.102	.376	6.170	.000	.904	
기 술 스트 레 스	.509	.092	.331	5.531	.000	.937		

성별, 학력 등을 회귀분석 1단계에 투입하고, 독립변수인 기술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을 2단계에 추가하였다. 모형 1의 경우, 성별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는 기술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모형 1에 비해 24.51% 더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t=6.170, p=.000) 및 기술 스트레스는(t=5.531, p=.000)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urbin-Watson은 1.846으로 기준 값 2에 매우 근접하여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H1. 시니어의 기술스트레스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H2. 시니어의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한편, 독립변수 두 개 중 자기효능감(표준화베타계수=.376)이 기술 스트레스(표준화베타계수=.331)보다 창업의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4.2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가설3(H3)과 가설4(H4)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H3. 시니어의 회복탄력성은 기술 스트레스와 창업의지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를 검증하였다.

<표7>에서 보면, 1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유의관계 분석결과, 기술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회귀계수 .177(t=2.581)로서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유의관계 분석 결과, 기술 스트레스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회귀계수 .335(t=5.084)로서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유의관계 분석 결과, 표준화 회귀계수 .283(t=4.428)로서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여 독립변수인 기술 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표준화 회귀계수 .293(t=4.592)으로서 통계적 유의수준 .001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 값은 .335이고 3단계의 독립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회귀 값 중 독립변수의 회귀 값은 .283으로 2단계의 회귀 값이 3단계의 회귀 값 보다 크므로 매개효과가 있다. 또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 기술 스트레스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총 효과는 .335이며, 그 중 직접효과는 .283이며,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052이었다.

<표7> 기술 스트레스와 창업의지 간 매개효과 분석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분산분석	
종속	독립	B	표준 오차	베타			R ²	F
회복 탄력성	기술 스트레스	.183	.071	.177	2.581	.011	.031	6.663
창업의지	기술 스트레스	.514	.101	.335	5.084	.000	.112	25.852
창업의지	기술 스트레스	.434	.098	.283	4.428	.000	.195	24.735
	회복 탄력성	.438	.095	.293	4.592	.000		

다음으로, 'H4. 시니어의 회복탄력성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를 검증하였다.

<표8>에서 보면, 1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유의관계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회귀계수 .368(t=5.675)로서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유의관계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회귀계수 .381(t=5.894)로서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관계 분석 결과, 표준화 회귀계수 .294(t=4.347)로서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여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표준화 회귀계수 .235(t=3.470)으로서 유의수준 0.0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 값은 .381이고 3단계의 독립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회귀 값 중 독립변수의 회귀 값은 .294로 2단계의 회귀 값이 3단계의 회귀 값 보다 크므로 매개효과가 있다. 또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총 효과는 .381이며, 그 중 직접효과는 .294이며,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087이었다.

<표8>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 매개효과 분석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분산분석	
종속	독립	B	표준 오차	베타			R ²	F
회복 탄력성	자기 효능감	.412	.073	.368	5.675	.000	.138	32.208
창업의지	자기 효능감	.635	.108	.381	5.894	.000	.145	34.743
창업의지	자기 효능감	.491	.113	.294	4.347	.000	.193	24.327
	회복 탄력성	.351	.101	.235	3.470	.001		

이상의 가설 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9>와 같다.

<표9> 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검정결과
H1. 시니어의 기술스트레스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시니어의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시니어의 회복탄력성은 기술스트레스와 창업의도 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H4. 시니어의 회복탄력성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V. 결 론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기술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회복탄력성이 이들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첫째, 기술 스트레스는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 가설을 채택한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 주장하려는 바와 배치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 연구결과의 시사점에서 서술할 예정이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니어의 창업의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선행이론을 지지하였다. 즉, 시니어들이 창업의지를 가지고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선행변수로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셋째, 회복탄력성은 기술 스트레스와 시니어의 창업의지 간에, 또 자기효능감과 시니어의 창업의지 간에 부분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복탄력성이 간접적인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5.2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을 학문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학문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첫째, 창업의지 영향 요인으로 그간 널리 연구되지 않았던 기술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관련 연구가 수행된 점이 본 연구의 차별점이다. 최근 심리학이나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기술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의 개념들을 창업의지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학문의 성과를 창업학에 접목시킨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창업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한 것이나(Bandura et al., 2001; 박성호, 2016), 기술 스트레스와 창업의지 간 정(+)의 영향관계가 나온 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거의 없어 새로운 발견 점이었다.

셋째, 회복탄력성이 기술 스트레스와 창업의지 간,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 부분매개 역할을 함을 밝힌 점도 지금까지 연구에서 거의 없었던 새로운 점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스트레스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술 스트레스를 느낄수록 기술 사용의 어려움과 소외, 갈등으로 인해 창업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보았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선행연구 결과가 거의 없지만 시니어들이 현실적으로 처해있는 어려움에서 새로운 활로의 일환으로 창업의지를 느낀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시니어들의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쌓아진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열망 수준과 개인이 평생에 걸쳐 도전하게 될 목표설정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Bandura et al., 2001).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시니어는 차별화된 기술과 경험으로 스스로를 신뢰하며 위험에도 불구하고 창업의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은 목표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시니어의 자기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키워 창업을 성공케 함으로써 일-삶의 균형과 신체적, 심리적 안녕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국가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다.

셋째, 회복탄력성은 기술 스트레스와 시니어의 창업의지 간에, 또 자기효능감과 시니어의 창업의지 간에 부분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술 미숙으로 인한 소외감이나 불안감이 오히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으로써 회복탄력성을 촉매하고 결국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복탄력성은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가변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좀 더 강한 자신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를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성장시킨다면 은퇴 전후의 불안감과 우울함을 떨쳐내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창업에 있어서 좀 더 시니어 자신에게 알맞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5.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스트레스와 창업의지, 회복탄력성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이번 연구결과만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에서 기술 스트레스와 창업의지, 회복탄력성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관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설문대상자가 수도권 위주 지역의 40대 이상 시니어 대상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지역의 풍부한 모집단이 되지 못한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대표성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시니어의 개인적 역량에 관한 변수로 기술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는

데 향후에는 다른 특성들도 확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학에서 자주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학문의 개념들 간의 융합 연구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FERENCE

- 강성일(2007), *관광중소기업 소유 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강재희, 강진희(2013), “외식관련 대학의 창업지원 교육과정이 학교만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지*, 28(2), 201-224.
- 강재학(2016),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기회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고령자 고용촉진법(20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구진아(2010), *국어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교수실재감의 학습효과 예측력 규명*,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국가인권위원회(2014), “업무상 IT기술로 인한 사생활침해 심각,” KBS NEWS 보도, 2014.1.14.
- 권혁호, 박영신, 김의철(2002),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02(1), 149-154.
- 기하영(2016), *지연행동유형에 따른 일상적 창의성, 인지적 유연성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동일, 김원호, 김명찬, 최선, 이주영(2011), “다시 생각해 본 리질리언스: 외상성손상 후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적응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4), 1371-1390.
- 김성우(2017), *대학의 창·취업교육이 창·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소향, 이신숙(2009), “노인일자리 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1), 309-327.
- 김수복(2016),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주관적 행복감 및 회복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김수안, 민경환(2011), “탄력성 척도의 비교 및 탄력성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25(2), 223-243
- 김윤경(2015), *디자인전공자의 진로성숙도를 중심으로 한 취업스트레스 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정은, 여정성(2007), “디지털 제품관련 소비자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119-135.
-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요인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3), 43-81.
-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위즈덤하우스, 서울.
- 김진욱(2013), *공유리더십이 종업원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종운(2014),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동기 및 창업계획시기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1), 79-87.
- 김현란(2015),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퇴준비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김현정(2012), *모바일오피스 환경에서 테크노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 노치경(2018), 성인 회복탄력성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노희옥, 김용호, 홍승준(2015), “정보통신기술 사용자의 테크노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지*, 6(4), 41-46.
- 도현래(2017), *테크노스트레스와 노모포비아가 직무소진, 조직갈등,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여행사 종사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마예림(2016),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성식(2018),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이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박나래, 최현석, 이종정(2011), “스마트폰 사용자의 테크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지*, 9(2), 179-186.
- 박시사, 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2), 187-204.
- 박영신, 김의철 역(2001), *[문화심리학총서3]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건강·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교육과학사. 서울.
- 박은지(2014),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 박인영(2014), *대학생의 부모애착, 성인애착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박종필, 최영은(2013), “조직구성원들의 테크노스트레스 형성과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 12(2), 55-71.
- 박철우(2016),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지식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성CEO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6), 12.
- 박현선(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발달메커니즘,” *청소년학연구*, 5(3), 147-165.
- 배혜련(2011),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지각된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백수민(2014), *개인특성과 환경적 요인, 창업교육이 여성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 서아영(2012), “스마트워크(Smart Work) 환경에서 개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비즈니스연구*, 13(3), 427-459.
- 서여주(2015), “베이비붐세대 소비자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46(3), 57-76
- 성동제(2015), *위기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과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신현숙(2013),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자기에 성향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안세환(2017), *테크노과중과 테크노침해가 심리적 분리를 통해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안승권(2016),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양준환(2015), “기업가정신 교육이 한·중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경영교육연구*, 30(4), 93-115.

- 오상훈(2013), *청장년 및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오성탁(2014), *테크노스트레스와 업무의 연속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일-삶의 갈등을 매개로*,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유봉호(2015), “성취욕구와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동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3), 51-60.
- 유안진, 이정숙, 김정민(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3(5), 123-132.
-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5(2), 1537-1557.
- 이국용(2017), “테크노스트레스와 모바일앱 이용중단행동 간 구조적 관계분석,” *대한경영학회*, 30(10), 1835-1855.
- 이미경(2018), *중장년층 소비자의 테크노스트레스와 스마트폰 활용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병권, 전인오(2014), “창업동기요인이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 연구*, 9(6), 213-230.
- 이수현(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관습관여형태와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순재(2014), *시니어창업의 성공을 위한 창업품질 요인분석 및 실증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이승배(2013), *중소벤처기업 창업자의 사회적 자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기창업자 행동을 매개로*,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승우, 서동민, 이상호, 이승복, 성원경(2010),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콘텐츠학회*, 2010(5), 539-541.
-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 121-146.
- 이진원(2014),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임덕(2012), *특수교사의 회복탄력성, 낙관성, 긍정적 환상과 심리사회적응 간의 관계: 중·고등학교 특수학급담당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해리, 조한익(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 임명성, 박민수(2015), “융복합시대에서 테크노스트레스의 개인별 차이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3(3), 137-153.
- 임명성, 한근희(2013), “테크노스트레스 유발요인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10), 31-45.
- 전정숙(2015),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과 학업적 실패내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정대용, 양준환, 김춘광(2013), “자기효능감이 창업참여도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81, 543-572.
- 정병현(2015), *공유리더십이 조직신뢰와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조병주(1999), *기회발견과 창업메카닉스*, 서울, 청아출판사.
- 정선아(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진수향, 이동건, 이상준(2012), “테크노스트레스와 안티스마트가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0(10), 187-195.

- 최갑현(2016), *은퇴자의 여가문화활동과 자기효능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박사학위 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 최혜련(2012),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참여가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태은주(2015), *학업스트레스 대처프로그램이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통계청(2017), *고령자 통계*.
- 통계청(2018),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준국어대사전(2017), 네이버 국어사전, 의지, 2019.4.1., <https://ko.dict.naver.com/>
- 한선영(2015), *회복탄력성, 일-삶 균형과 직무만족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호병환(2016), *대학 및 사회의 창업지원과 대학생의 창업의지 간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홍은숙(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 홍세일(2017), *조직 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테크노스트레스가 업무 간 기기활용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영남 대학교 대학원.
- 황수연(2007),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지역 소상공인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 Ayyagari, R., V. Grover, and R. Purvi(2011), "Technostress : Technological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MIS Quarterly*, 35(4), 831-858.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Bird, B. (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 442-454.
- Block, J. H., and J. Block(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pp. 39-101.
- Brillhart, P. E. (2004), "Technostress in the workplace managing stress in the electronic workplac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Business*, 302-307.
- Brod, C. (1982), "Managing technostress: Optimizing the use of computer technology," *Personnel Journal, ABI/INFORM Global*, 61(10), 753-757.
- Brod, C. (1984), *Technostress: The Human Cost of The Computer Revolution*, Addison-Wesley Reading, MA.
- Boyd, N. G., and Vozikis, G. S. (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 64-77.
- Chapman, R. (1992), *Roget's Thesaurus*, Harper Collins, NY.
- Constantine, J. L. (1999), *Mental Health Service Delivery: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Financing Components and Consumer Outcomes*, Washington University.
- Garm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artner, W. B., B. J. Bird, and J. A. Starr(1992), "Acting as if: Differentiating entrepreneurial from organizational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 13-33.
- Kol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

- Krueger, Jr., N. F., and D. V. Brazeal(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Lee, H. S., and S. J. Lee(2014), "An empirical study on the discontinuance intention of smart device in post adoption context," *Journal of The Korea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Society*, 9(1), 13-21.
- Mazzarol, T., T. Volery, N. Doss, and V. Thein(1999), "Factors influencing small business start-up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Research*, 5(2), 48-63.
- Ragu-Nathan, T., M. Tarafdar, M. Ragu-Nathan, and Q. Tu(2008), "The Consequences of technostress for end users in Organizations: Conceptual development and empirical validatio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9(4), 417-433.
- Reivich, K., and A. Shatte(2002), *The Resilience Factor*, Broadway Books, NY.
- Schellhammer, S., R. Haines, and S. Klein(2013), "Investigating technostress in situation : Understanding the day and the life of a knowledge worker using heart rate variability,"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46, 430-439.
- Tarafdar, M., Q. Tu, B. Ragu-Nathan, and T. Ragu-Hathan(2007), "The impact of technostress on role stress and productivit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4(1), 301-328.
- Tu, Q., K. Wang, and Q. Shu(2005), "Computer-related technostress in china," *Communications of The ACM*, 48(4), 77-81.
- Veciana, J. N., M. Aponte, and D. Urbano(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 165-182.
- Weber, P., and M. Schaper(2004), "Understanding the gray entrepreneur,"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12(2), 147-164.
- Zhao, H., G. E. Hills, and S. E. Seibert(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1272.

The Influence of Senior's Technical Stress and Self - 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 Including Mediating Effects of the Resilience

Chang, Soo-jin¹⁾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 analysed how senior's technical stress and self-efficacy affecte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whether resilience functioned as a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m. 207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field survey questionnaires administered to a convenience sample of senior men and women aged 40 and over who ha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r hypothesis testing, the IBM SPSS Statistics 24.0 was used.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Empirical studies showed as follows. First, technical stress affected senior's entrepreneurial intentions. Second, self-efficacy turned out to affect senior's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ird, resilience came out to have a partial-mediating effects between technical stress and the senior'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 well as between self-efficacy and the senior's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se research outcomes supported the preceding studies that self-efficacy played key roles in maximizing senior'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self-efficacy as an independent variable for seniors to promote entrepreneurial activities with an intention of starting a new business. Furthermore, the technical stress newly introduc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was found to be the next most important factor after the self-efficacy. The study also confirmed that the resilience has been doing an partial-mediating effects. However, it appeared that the technical stress affected the will of start-up, but it appeared to be a positive relationship. For generalization of this finding,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Keywords: Senior Startup, Technical stress(Technostress), Resilience,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

1) Author, 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sj7339@hanmail.net

제1 저자 소개

- 장 수 진(Chang, Soo-jin)
- 호서대학교 창업대학원 경영학 석사, 현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문화컨텐츠 전문가
<관심분야> : 문화컨텐츠 마케팅, 문화컨텐츠 스토리텔링